

화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

내달 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화순군은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2월 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기준은 ▲벼 육묘장(자동화)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이 있으며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조 한도는 기종마다 다르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농업회의소 현장 규제 의견 수렴

담양군은 현장 중심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지난 13일 농업회의소 이사회에 참석해 농업 분야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업회의소 이사회에는 각 농업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해 농업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업 분야 대표들은 그린벨트 및 용도지역 조정, 마을별 오·폐수관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담양군은 농업회의소 이사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조

례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농업회의소와 함께 12개 읍·면 순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 중심 운영으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들을 발굴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되, 주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위한 규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함평, 설 명절 맞아 이웃돕기 성금 줄이어



함평군에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 음식점체인 정경복궁(대표 홍경미)과 카페인·별미관(대표 정혜인)에서 지난 13일 '희망2023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경복궁과 카페인·별미관 대표는 모내 기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

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씨엔에프 함평(대표 정원일)에서 냉동 간고등어 150박스(450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기탁해 주신 성금과 물품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흥 '인구 늘리기 원년' 총력 대응... 4만명 회복 목표

인구청년정책과 신설... 일자리 창출 등 행정력 집중

김성 군수 "지방 소멸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삼겠다"

장흥군이 2023년을 '인구 늘리기 원년'으로 삼고 인구 4만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장흥군은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흥군 인구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 지방소멸대응팀,

고향사랑팀, 청년지원팀으로 구성했다.

향후 5년 간 장흥군 인구정책의 방향성 확립과 정책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



인 육성 등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기반 마련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결혼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합

리적인 주거지원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민선8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군의 역점사업의 실현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됐다"며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광, 55억원 투입 축산악취개선 집중 추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2건 선정 등 총 6개 사업

영광군은 올해 6개 사업에 총 55억 원을 투입해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의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축산악취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악취개선사업(공모)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물질제거 사업(공모)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이다.

특히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돈 농가에게 농장별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을 지원하여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축산용 미생물제를 매월 공급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의 장내 환경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축협, 축산환경관리원, 생산자단체, 사업 참여 농가, 지역주

민 대표 등을 중심으로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산농가 악취개선 컨설팅, 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 조정 등 축산악취에 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며 "군에서는 악취 냄새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안전한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화순군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병원 6개소, 의원 8개소, 보건소 1개소, 약국 19개소를 설 연휴기간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지정·운영해 환자 진료 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화순고려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7개소(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화순전남대병원 및 보건소에서 연휴기간동안 운영하며,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진료일자·시간은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급환자 정보센터는 국번 없이 119번을 이용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연휴에도 군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문어는 병·의원, 약국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설 연휴 기간 민원서류 발급 가능

담양군은 설 연휴 기간(1월 21일 ~ 24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상태 및 유지보수 현황, 시스템 작동 및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담양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사무소, 담양농협 본점 등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119종의 발급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민원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을 통해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 관련 민원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성,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확대

저소득 주민 기저귀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장성군이 새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첫째아 15일 서비스 이용 기준 가격이 19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 올라, 정부지원금도 119만 5000원으로 6만 7000원 인상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출산 순위, 서비스 이용일에 따라 41만 원부터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을 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

만 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1만 원씩 올랐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도 해당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위탁아동 가정이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심재식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